

GSEF 2014

지역사회와 공유경제



지역사회 내 공유경제





1. 애물단지, 고척 돔야구장



- 좁은 구장 공간(목표는 25,000석이지만 발이라도 제대로 뽐고 보려면 15,000석이 적당)
- 지하철(1호선 구일역이 유일한 지하철 역이며, 출입구 한 곳으로 15분 이상을 걸어 나와야 함)
- 버스(버스중앙전용차로가 설계되어 있으며, 서울에서도 가장 낮은 평균 시속 19킬로미터를 기록할 정도로 체증이 심함)
- 주차(구장 내 200면, 안양천변 300면 계획에 200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잠실구장의 3,500면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큼)
- 유지비용(잠실구장에서 두산과 엘지가 내는 사용료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유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



2. 공유경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역실험



자신들의 집 주차장을 빌려주는 온라인
p2p 사이트 'Parkatmyhouse.com'

1. 주차장으로 쓸 만한 유휴공간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온라인 사이트에 해
당 지역의 지리 정보 업로드
2. 주차공간이 필요해 사이트를 방문한 사
람은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
➔ 주차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인
근 지역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30% 정도 저렴



좌측부터 '에미레이트 스타디움(Emirates Stadium)', '웬블리 스타디움(Wembley Stadium)', '올드 트래퍼드(Old Trafford)'



2. 공유경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역시막



➔ 공공 주차장에 비해 훨씬 안전하고, 오랜 대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쾌적함을 바탕으로 오늘날 영국 내 최대 공유 관련 사이트로 성장



3. 공유 관련 기업 사례



2008년 8월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 임대 가능. 2013년 기준, 192개국 3만 4800여 개 장소에 대한 숙박을 중개하고 있으며, 2초당 한 건 씩 예약이 이뤄지고 있음. 2013년 1월 29일 한국 진출 발표



회원제 렌터카 공유 회사. 회원은 일 단위, 시 단위로 자동차 대여 가능. 1999년 미국 캄브리지 매사추세츠에서 설립되었고, 2007년 10월 31일 경쟁 업체였던 플렉스카를 합병



201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 친구 100여명을 네트워크로 묶은 다음 휴대폰 버튼만 누르면 차가 달려와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시작. 입소문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초창기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 중. 14개 국가 35개 도시에서 서비스.



4. 같지만 다른 성장 경로



1천200 가구가 넘는 에어비앤비 등록 가구가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해 빠른 복구를 가능케 함. 뉴욕시와의 협약으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 공유 경제가 공동체에서 갖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는 사례로, 모금 운동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손꼽힘

2013년 초 집카는 에이비스 버젓 그룹과 5억 달러(주당 12달러 25센트)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합의. 최근 거래가보다는 훨씬 웃돌지만 상장가에는 못 미치는 주당 인수가격. 집카의 나스닥 상장가는 18달러였으며, 2011년 4월 최고 가격 31달러 50센트를 기록하기도 했음.

올해 2월10일 파이낸셜타임스와 LA 타임스에 따르면 수백 명의 프랑스 택시운전사가 우버 택시에 반대하는 파업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버 택시 10여대를 파손하는 일이 발생. 지난해 우버 택시가 진출한 서울시도 여객운송법을 근거로 불법으로 규정지를 예정.

공유경제 성공의 열쇳말, 사회적 경 제





1. 공유지의 비극



‘공유의 비극’은 자원고갈과 환경파괴가 심화되면서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지금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은 두 가지. 공유자원을 국유화해 국가가 관리하거나, 사유화 즉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



2009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롬 교수는 태국, 네팔, 인도 등에서 국유화 이후 비리와 감시인력 부족으로 오히려 산림 파괴가 늘어난 것 그리고, 사유화 역시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의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설파. 실제, 산림이나 어장, 지하수 등은 사유화 자체가 어려움.



2. 공유지의 비극, 사회적 경제로 극복하다



스위스 북부 발레스 주의 툴르벨 마을은 15세기 무렵부터 마을 공동 목초지를 운영. 1517년 작성된 조례에는 “여름철 초지에 내보낼 수 있는 소의 수는 겨울철에 자신이 사육할 수 있는 소의 수만큼만 허용된다”고 명시. 마을 목초지에 내보낼 가축 수를 제한하고 이를 공동 관리하도록 한 것. 규약은 마을 전원이 참석한 투표에서 결정되며, 지금까지 지켜져 환경파괴나 자원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지하수 분지는 주변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땅 밑에 고인 일종의 지하 저수지로, 캘리포니아 주 같은 반건조성 지역에서는 중요한 수자원. 이 중 레이먼드 지하수 분지 위에는 패서디나 시, 앨햄브라 시 등 10여 개 도시가 있음. 패서디나 시는 1930년대 들어 지하수 사용량을 감축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역 생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하수 분지 물 사용량은 매년 늘어 언제든 법원이 전체 사용량을 감축할 것이 분명했음. 지역 생산자들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맞는 대신 스스로 협상에 나서 합의안을 작성하기로 함의



3.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 - (1) 지역 공동체 주도



1. 주차장(주차 공간) 검색 기능: 서울시내 공영/민영/부설 주차장 정보 제공, 현위치 및 목적지 주변 주차장 요금, 운영시간 등 세부정보 안내, 네비게이션 어플 연동(현재 '김기사' "Tmap" "올레네비" 지원)
2. 주차장(주차 공간) 공유 기능: 주차면의 쓰지 않는 시간대를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유 가능, '14년 5월 현재 서울시 송파구/강동구/광진구에서 시범운영 진행 중
3. 주차장(주차 공간) 공유된 주차면 사용 기능: 다른 사람이 공유한 주차면 검색 및 결제, 30분 단위 과금 체계로 자유로운 활용, 주차 중 위치 확인 및 주차시간 연장 가능



3.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 (2) 사회적, 경제적 가치 균형 추구



- 영국 동남부에 위치한 서퍽(Suffolk)주는 공공도서관의 비효율적 이용과 방만 경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에게 경영을 맡김

- 2012년 8월 모든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자선사업체 성격의 사회적기업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IPS)에 서 담당하도록 했음



- 런던의 그리니치구(區) 역시 공공 도서관 사업을 사회적기업인 Greenwich Leisure Limited(GLL)가 담당하도록 허가

- GLL은 지방 정부와 일하는 사회적기업 중 영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체이며, 1990년대 초반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곳



4. 사회적경제 도입 공유경제 사례 - (1) P2P



1.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신용확인 과정을 거치고 '빌리기' 신청.
2. 돈을 구하는 이유와 상환 계획 등을 '경매 게시판'에 업로드
3. 처음엔 100~300만원부터 대출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성공적으로 상환할 경우 기록이 누적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4. 금리는 대출자가 연이율 0%에서 법정한도인 30%까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너무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면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엔 20% 전후로 책정하는 게 대부분.
5. 이 외에도 신청자의 정보, 소득, 지출, 연이율, 과거 대출 내역 등의 신용정보가 담기며, 돈을 빌려줄 의향이 있는 예비투자자들은 게시판에 질문을 남길 수 있고, 대출자의 상환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음. 질문 답변과 상환기록의 성실성 등이 투자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셈



4. 사회적경제 도입 공유경제 사례 - (2) 재활용



-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정부물품재활용 인천센터는 전국 8곳의 정부물품재활용센터 가운데 한 곳
- 시작은 1999년 인천지방조달청 비축창고 내 시범 재활용센터
- 이듬해 2000년 정부물품 재활용 관련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정부물품재활용센터로 정식 출범
- 첫째,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하는 정부물품 및 공용물품을 수집 및 인수해 재활용 판매
- 대형 폐기물 수집 및 매입이다. 지역 내 가정, 업소, 기업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한 대형 폐기물품을 철거 또는 인수
- 셋째, 수리 재활용품 전시 판매다. 이를 위해 인천의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전시판매장을 연중 상설 운영



4. 사회적경제 도입 공유경제 사례 - (3) 물류창고 공유



- 중동부슈퍼조함은 1989년 조합으로 설립된 한국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속한 지역별 조합 가운데 하나
- 서울엔 중동부 말고도 중남부, 서부, 남서부, 관악, 동작영등포, 서초강남 등 7곳의 지역별 조합이 있음
- 이 가운데 조합원들이 직접 물류센터를 세워 운영하는 곳은 중동부뿐
- 최근 서울중동부슈퍼조함은 최근 10억 원을 추가 투자해 물류센터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으로 확대·이전
- 물류센터 규모를 두 배(990㎡)로 늘리고 전산시스템도 새로 도입했다. 현재는 사업자를 제외한

직원 8명에 연 매출 580억 원 기록 중



4. 사회적경제 도입 공유경제 사례 - (4) 프리마켓



- 사회적기업 일상예술창작센터가 2002년부터 홍대 앞 놀이터에서 열고 있는 프리마켓은 일상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컨셉트로 매주 토요일 진행
- 생활창작 작가들이 만든 다양한 아이템들이 전시 및 판매되며, 개성 넘치는 작품으로 12년째 계속되고 있음
- 해노리장은 ‘해(Do) + 노리(Play) = 니 마음대로 해!’의 의미로 주민 스스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경제행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하고 참여주체의 협동과 연대·신뢰가 바탕이 되는 공유경제 시스템 조성을 위해 기획
- 벼룩시장 개최(주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 문화예술 공연(지역동아리의 공연 등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 컨셉형 테마 마켓(월별 테마를 선정해 차별화된 마켓 운영),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생산품



4. 사회적경제 도입 공유경제 사례 - (5) 전통 시장



- 대인예술 야시장은 1965년 당시 87개였던 점포가 90년대 시장 인근에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300여 곳으로 늘었음
- 옷돈을 얻어야만 점포를 얻을 수 있을 정도였지만 도시계획에 따라 역과 터미널이 이전하고 농협 공판장도 옮겨지자 몰락 시작
- 굳게 내려진 셔터의 문틈으로 다시 활기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예술가들의 작은 상상에 서부터
- 예술가들이 작업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욕구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장 상인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짐
- 현재 6월~10월 중 마지막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저녁 7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야시장을 열고 있음



4. 사회적경제 도입 공유경제 사례 - (6) 공공자전거



- 울산 남구: 양심자전거를 60대 비치했으나 시행 3개월여 만에 모두 분실하여 제도를 폐지하고 고장 난 채 버려진 자전거를 거둬서 수리한 후 저소득층 가정에 나눠주었으며, 북구도 양심자전거 26대를 비치했으나 한 달도 안 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함
- 강원도 화천군도 2년에 걸쳐 총 200대의 양심자전거를 도입했으나 실패하고, 이후 140대를 재비치 하였으나 분실율은 낮아지지 않았음
- 서울시 송파구는 한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200대의 노란색 양심자전거를 도입하였으나 3개월 만에 한 대도 남지 않고 사라졌음. 심지어 노란색을 벗기고 자물쇠를 채워 개인이 사용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음



4. 사회적경제 도입 공유경제 사례 - (6) 공공자전거



- 뉴욕의 시티바이크(<http://citibikenyc.com>)는 시티은행의 후원으로 사회적기업과 지자체가 만든 공공 자전거 시스템
- 개발과 운영을 사회적기업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민영화와 국유화의 덫을 피해갈 수 있었음
- 2013년 기준 뉴욕의 시티바이크는 330여 곳의 자전거 대여소에 6,000대의 공공 자전거를 비치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으로 체증이 심한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음
- 지하철을 이용하면 기다리는 시간과 걷는 시간이 너무 길고, 택시를 타기엔 교통 요금이 너무 비싼 틈새를 잘 파고든 것
- 공공자전거 사업에 지방 정부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공자전거의 홍보 기능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후원업체를 활용한 것도 성공을 견인



4. 사회적경제 도입 공유경제 사례 - (6) 공공자전거



(주)푸른바이크쉐어링

-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푸른바이크쉐어링은 한 화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금과 자체수익금 등 총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주도 내 6개 지역에 블루스테이션을 설치
- 블루스테이션은 일반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고, 전문 동호인들은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공구를 갖추고 있으며, 자전거여행 정보센터의 역할을 담당
- 기존 공공자전거와 달리 적은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IP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렌탈과 관리가 가능해 유지관리에도 효율적이라는 평가

시사·점





1. 사회적 가치 창출 - 사회문제 해결 기능 으



에어비앤비 공동설립자 네이션 블래차지크



우버 택시 CEO 트래비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느냐?”
“법적 문제가 없는 도시에만 진출한다, 운송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개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콜택시와 뭐가 다르냐?”
“지능형 서비스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아진다. 기사가 어디 있는지 모른 채 부르는 것과 바로 옆에 있는 기사를 부르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서울엔 샌프란시스코와 달리 택시가 많은데?”
“언제나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을 순 없지 않나, 고급 요리도 먹고 싶을 때가 있다.”(서울 론칭 인터뷰 중에서)



1. 사회적 가치 창출 — 사회문제 해결 기능 으



-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에어비엔비가 세금 미납, 안전시설 미비, 도시계획법 위반 등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혐의로 기소
- 일부 건물주들이 이를 통한 불법 임대로 돈을 벌려고 기존 세입자들을 쫓아낸다는 것
- 검찰에 따르면 피소 건물주들은 주거용 임대 주택에서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킨 후 불법 개조한 아파트를 에어비엔비, 홈웨이닷컴, VRBO닷컴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임대해 돈을 벌었으며, 강제퇴거된 세입자들 중 2명은 신체장애인
- 최근 뉴욕주 대검찰청은 뉴욕시 시내 아파트에 대한 에어비엔비 임대 게시물 중 3분의 2 가까이가 불법 임대영업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
- 올해 1월말 기준으로 뉴욕시 시내의 에어비엔비 임대 게시물 1만9천522건 중 '아파트 전체를 30일 미만 동안 빌려 주겠다'는 내용의 글이 64%를 넘었다고 설명
- 이런 방식으로 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현지 법에 어긋나는 것



AVIS, 집카 5억弗에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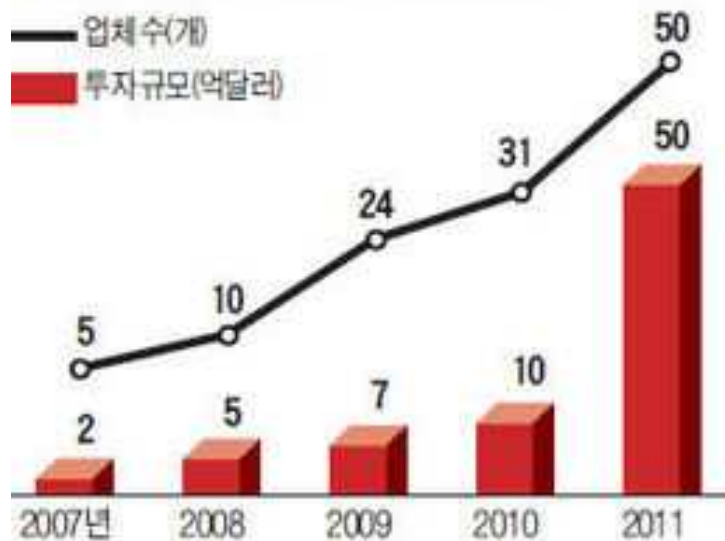
- 한겨레경제연구소**
Hankvoreh Economic Research Institute



3. 거버넌스 – 실리콘밸리, 약인가? 독인가?

벤처캐피탈을 통한 안정적인 자원 조달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상장과 주주가치 우선이라는 명제는 집카와 마찬가지로 자칫 공유 관련 기업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음

급성장하는 실리콘밸리 공유경제



자료: 크런치베이스닷컴(crunchbase.com)

실리콘밸리 주요 공유경제 업체

업체명(소비대상)	사이트
집카(자동차)	zipcar.com
스레드업(유아복)	thredup.com
파크앤티마이하우스(주차공간)	parkatmyhouse.com
에어비앤비(집)	airbnb.com
프리사이클(중고품)	freecycle.org
베이비스와프(영·유아용품)	babyswap.net
홈리퍼버스(공구)	homerefurbers.com



Q&A



THANK YOU



Social
Economy